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이명희 (인제대학교)**·조항 (인제대학교)***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40세 이상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취업지원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총 9편을 최종 선정하고, 각 개별연구에 포함된 40개의 효과크기를 도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 조절변인(종속변인, 회기 수, 참여세대, 참여인원, 출간유형)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1.292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인군별 효과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취업·진로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심리·정서 변인군의 효과크기보다 크게 나타났다. 셋째, 회기 수, 참가자 연령, 집단크기, 출간형태 등 조절변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기 수가 10회기 미만이고,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고, 참여인원은 11~20명 일 때,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간형태의 경우,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 학술지 논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취업지원프로그램, 중·고령자, 메타분석.

* 본 논문은 2020학년도 이명희의 석사논문을 수정·보완 및 요약한 것임.

** 제1저자,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mail: mhjoshua@hanmail.net.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E-mail: hangjo@inje.ac.kr; Tel: 055-320-4023; Fax: 055-320-4052.

I. 서론

최근 저출산과 기대 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7; 한국고용정보원, 2017). 이러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 속도는 일본(36년)이나 미국(105년)에 비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5).

아울러 IMF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40대, 50대의 이른 퇴직이 시작되면서 중·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작되었다. 실업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해결과 재취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중·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2년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직지원이 의무화되었으나 일반 구직자에게는 실직하기 전의 대책이 없어 퇴직과 함께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중·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제도가 생겨났다(김현정, 2014).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직업이 소멸, 생성되면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취업하거나 오래 일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일자리가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강순희, 2016; 이선미, 2018). 이처럼 중·고령자의 재취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근로조건은 열악해지고 있어 취업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길어진 생애주기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는 유용한 인력 확보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고 은퇴자들이 지닌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중·고령자의 재취업은 필요하다(Anthea, 1997). 20세기의 직업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다면 21세기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질적인 삶의 향상추구를 위한 평생 직업시대가 되면서 평생직업유지가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다(이명심, 심지현, 2016).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정년퇴직 후 경력개발과 전직지원이 이슈가 되고 있다(김지선, 2007).

고령화 사회는 퇴직 후 20년 이상 경제적 사회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애기간이 연장되면서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경력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탁진국(2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력고민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요인이 ‘은퇴’였으며, 주의 깊게 볼 점은 은퇴에 관한 고민이 가장 높은 세대가 50대가 아니라 40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길어진 생애주기로 효과적인 경력설계 및 퇴직 이후의 안정적 설계를 하지 못하여 중년의 직장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은퇴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김서호, 2016). 아울러, 직업세계의 급속한 변화는 다양한 유형의 고용형태를 생성하였고, 개개인에게 새롭게 경력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퇴직이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통합적으로 준비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인적자원 활용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미자, 2009).

중·고령자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되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수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는 매우 많으며(구자관·박종혁, 2012; 이우현·하태중, 2007; 이창우, 2007; 황희숙, 2011), 고령층의 취업률 제고방안과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실업대책을 제시하거나(신효재, 2014), 고령자들의 퇴직 전·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김기홍·김해동·변재관·김선희, 2003; 안승완,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은퇴 및 전직프로그램 현황과 고령자 취업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에서는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감의 유지와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퇴직자의 의식과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강혜숙, 2006; 임안나, 2007). 이 연구는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퇴직 후 실직 상태에서 안정 및 유지와 변화라는 절박한 요구를 갖고 있는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자, 2009). 또한, 정부 정책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증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안의 하나로 개발된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별칭: 성실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대별 차이뿐 아니라 연령대가 비슷한 중·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세부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취업 및 재취업가능성, 취업욕구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미자, 2009; 백영의, 2007).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구직활동과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많으며(강혜숙, 2006; 이세영·김병규, 2014; 임안나, 2007),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주제로 중·고령자에게 실시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수의 연구가 시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에서 한 개 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여(신효재, 2014; 이세영·김병규, 2014)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고, 특정 기업에서 개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적인 측정 변인과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김석란, 2016; 박예슬, 2011).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개별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직이나 구직상태에 있는 중·고령자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

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향의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연구결과의 종합적 분석으로 논문의 다양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길어진 생애주기와 실업에 관한 정책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방법인 메타분석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연구들의 평가 방향과 효과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별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산출하여 서로 다른 개별연구들을 비교하는 메타분석의 방법으로, 그동안 수행된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계량화하고 종합하여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3월까지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중·고령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개별 연구가 처치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산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메타분석(Lipsey & Wilson, 2001)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조절변인(회기 수, 참여세대, 집단크기, 출간형태)에 따른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중·고령자의 개념

중·고령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변화가 큰 것 중 하나가 사회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길어진 고령기는 중년 이후부터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고령자의 개념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퇴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김남현·방희명, 2019).

중·고령기는 노인 이전의 생애적 단계로 연구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며 각 나라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지원법에 의해 준고령자와 고령자로 구분하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17). 중·고령자가 참여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자 및 구직자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상자인 경력단절여성들은 40세에서 60대 사이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가 가장 많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퇴직하는 시점이 50대에서 40대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김현정,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에 대한 개념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용현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40대 이상 연령대를 중·고령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2.2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정의 및 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이해 및 의사결정, 구직기술 향상,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습득 이라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목적은 취업 효능감의 증진, 취업 의사결정의 지원 등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며 상담 프로그램이자, 지식전달 교육이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김소영, 2010; 신호재, 2014).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과정 속에서 일자리의 소멸과 감소로 인하여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노동부가 주축이 되어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었다(김소영, 20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문제 해소와 고용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수요자 특성과 대상에 맞는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설기관, 학교 등은 그 조직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영환, 2016).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취업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 적성 및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취업 욕구와 의지의 향상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 태도와 자세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취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과 직업 세계의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직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 모색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구직기술의 향상이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이나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구직 역량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하고 구인처에 본인의 강점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김소영, 2010; 김영환, 2016; 박가열 외, 2007).

2.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연구 빈도도 다수이고 프로그램의 종류, 변인들도 다양하다(장세비, 2016).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노연희 등(2003)의 연구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취프로그램’이 실업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재취업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직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희망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상대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면서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주은, 2018). 취업희망프로그램 개정에 따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보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가지게 되어 프로그램 실시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가열 외, 2007).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다른 연구(김영환, 2016)에서는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학력·혼인상태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빈(2016)의 연구에서는 취업희망프로그램이 취업 취약계층의 자존감 상승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연(2004)의 연구에서 발표한 취업희망프로그램 효과는 구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노동부에서 고령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발된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성실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고령자 집단으로 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자, 2009). 또한 노경란·정희숙(2008)의 연구에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취업의 주요 요소인 구직행동, 구직 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령자의 37% 이상이 생계목적 외에 시간활용, 사회참여, 가족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김미자, 2009), 고령자들의 다양한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선정기준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에 적합한 논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Study designs(이하 PICOS) 기준에 맞추어 논문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였다(Littell, Corcoran, & Pillai, 2009). 연구 대상자는 40세 이상인 중·고령자 대상 연구를 선정하였다. 각 연구마다 중·고령 이라는 나이를 규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개입방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구물들을 선정하였는데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진생애적인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역량 향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개입뿐만 아니라 생애진로설계를 돕는 개입 프로그램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 설계유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를 비교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효과 크기 계산에 필요한 값을 보고한 통계적 수치 정보, 즉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값 등을 제시한 논문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통제집단이 없거나 양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1> PICOS 선정 기준

선정기준	포함 조건	제외조건
연구대상자 (Participant)	중·고령자 (40세 이상)	특수집단, 대학생, 일반성인
개입방법 (Intervention)	취업지원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다른 효과의 프로그램
비교집단 (Comparison)	통제집단이 있는 논문	단일집단, 통제집단이 없는 프로그램
연구결과 (Outcomes)	프로그램 효과 보고 논문	프로그램 효과를 보고하지 않은 논문
연구 설계 유형 (Study designs)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	단일집단 사전-사후, 질적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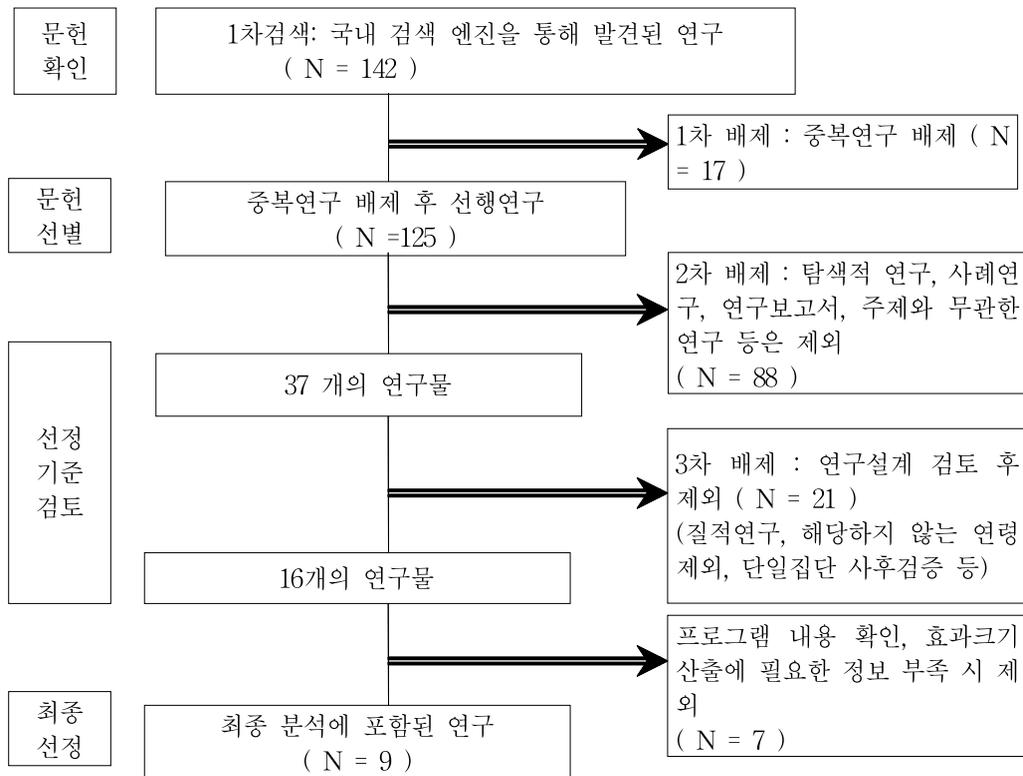
3.2 자료 검색 및 선정 절차

분석대상 연구물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DBpia, 스콜라, 한국학술정보(K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채널로 하였다. 최종 논문의 선정은 그림 1과 같이 논문 선정과정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이하 PRISMA; Moher, Liberati, Tetzlaff, & Alsmann, 2009) flowchart에 따라 수집, 선정하였다.

첫째, 자료 검색은 2020년 3월까지 수행된 연구물로 하였고, 검색 키워드는 중·고령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차 검색을 하고 취업, 프로그램, 효과, 취업지원 서비스, 전직지원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퇴직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2차 검색을 하였다. 총 발견된 논문은 142편이다. 둘째, 문헌 선별 단계에서 발견한 연구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개별 연구의 제목과 저자명, 출판연도에서 중복된 논문을 확인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논문제목, 발행연도, 자료유형, 발행처, 초록내용을 확인하여 중·고령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논문으로 범위를 좁혔다. 관련이 없거

나 탐색적 연구, 사례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와 무관한 연구 등은 제외 시켜 총 37편의 논문이 집계되었다. 넷째, 원문내용을 통해 수집된 논문 중 PICOS 선정기준에 맞게 검토한 결과 총 9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통제집단, 비교집단이 없거나 통계치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누락된 논문은 탈락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연구는 학술지 논문 2편, 학위논문 7편 등 총 9편이었으며, 이를 통해 40개의 개별 효과크기를 도출하였고 각 개별 효과크기를 실제 코딩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단계별 자료 검색 및 논문 선정 과정 (PRISMA flowchart)



3.3 분석 대상 논문의 특징과 자료 입력

메타분석에 포함된 최종 40개의 효과크기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출간형태, 회기 수, 참여세대, 집단크기에 따른 조절변인의 특성별 자료 분포를 살펴보고 종속변인 별 자료 분포, 종속변인의 하위 데이터프레임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저자명, 출판연도, 출간유형, 회기 수, 연구대상, 참여인원, 프로그램효과 종속변인에 대한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

저자명 (연도)	출판유형	참여 인원	연구대상	효과측정 종속변인	회기수
구수영* (2019)	학위논문	23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성장욕구	6회
김서호 (2016)	학위논문	67	50대 이상 은퇴자	재취업 불안 재취업 스트레스 진로신념	14회
김안정 (2009)	학위논문	23	50대 이상 실직 고령자	구직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검사	5회
박정하 (2016)	학위논문	16	40대 이상 전직준비 중장년층	자존감 전직준비도 회복탄력성	6회
신호재 (2014)	학위논문	40	40대 이상 중장년층 구직자	구직효능감 진로장벽	10회
이창향 (2014)	학위논문	24	40대 이상 경력단절 중년여성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회
이형국 (2009)	학술지	34	50대 이상 노인층 구직희망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구직기술 구인행동 취업률	10회
임주연 (2008)	학위논문	50	50대 이상 정년퇴직 3개월 앞둔 대기업 생산직근로자	삶의 기대 퇴직불안 퇴직준비도	10회
조은주 (2015)	학술지	34	40대 이후 남녀 성인학습자	커리어 미래 적응성	10회

※ * 구수영(2019)의 연구참여자 중 30대가 1명이 존재하였으나 다수가 40대 이상이라 분석대상에 포함.

첫째, 출판유형은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둘째, 회기 수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의 회기수가 5회~14회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정민(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10회기를 기준으로 10회 미만과 10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참여세대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40대~50대, 50대~60대, 3세대 이상 모두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사례 수간에 균등한 분배를 위한 것이다. 넷째, 집단크기에 따른 분포는 프로그램의 집단 참여인원이 8명부터 32명까지 다양하여 효과크기 분석을 위하여 집단크기를 10명이하, 11~20명이하, 21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사례 수 간 균등한 분배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11~20명 이하 집단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따른 분류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별연구에서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의 성격에 따라 심리·정서 요인과 취업·진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표 3 참조>.

<표 3> 종속변인별 효과 분석 프레임

종속변인군	구체적 요인(k = 40)
심리·정서	자아존중감(3), 우울감, 자기효능감, 불안(퇴직, 재취업, 불안원인, 불안상황), 재취업스트레스(성격, 가족, 환경), 자존감, 회복탄력성, 삶의 기대, 성장욕구, 지지체계, 삶의 균형
취업·진로	구직효능감(2), 구직기술,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 도구 활동, 실천적노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직업정보, 목표,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진로신념(외적, 통제감, 내적, 유연성), 전직준비도, 퇴직준비도, 진로성숙도, 커리어주체성, 부정적커리어전망, 직업인식, 진로장벽

메타분석은 실제 원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2차 자료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체계적 분석을 통해 코딩메뉴얼을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코딩메뉴얼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만들어질수록 코딩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결국 코딩메뉴얼의 개발은 메타분석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오성삼, 2002). 따라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연구물들의 관련변수와 자료를 코딩하였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특성상 균일한 변인분류에 어려움이 있어 각 연구에 제시된 변인을 그대로 작성하여 범주에 따라 목록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뿐만 아니라 출간형태, 회기 수, 프로그램의 효과 영역, 참여인원, 참여세대 등을 연구의 주요 변수로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 함께 코딩하였다. 최종 선정된 개별 효과크기(k=40)의 일반적인 특성과 프로그램 효과 분석을 위해 이현정(2018)이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코딩메뉴얼을 작성하였다. 자료는 작성된 코딩메뉴얼의 분류에 따라 Excel에 입력하였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효과크기(effect size) 계산을 위해서 실험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사용해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R 3.6.1 프로그램과 Excel 2016을 사용하였으며, R 프로그램의 오픈 패키지인 'meta'와 'metafor'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각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차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개별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제시된 효과크기는 Cohen's d에 가중치를 부여한 Hedges' g 효과크기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Cohen(1988)과 Wolf(1986)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였다. 둘째, 개별연구로부터 계산된 효과 크기가 모집단의 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있는지의 검정을 위해 동질성 검정을 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라 어떤 모형으로 분석할 것인지 결정하였다. 셋째, 부분 분석과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평균 효과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출판오류를 분석하였다. 출판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Rothstein, Sutton, & Borenstein, 2005), 본 연구에서는 깔대기 그림(Funnel plot), Egger의 회귀분석, trim-and-fill 방법(Duval & Tweedie, 2000)을 통해 확인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균 효과크기

프로그램의 효과모형 선정을 위해 먼저 Q 값과 I^2 값을 사용하여 동질성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실제 분산의 비율 I^2 이 75% 이상이고, 동질성 검정 Q 의 유의확률이 0.10보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황성동, 2014; Higgins & Green, 2011). 동질성검정 결과, Q 값은 200.58 ($p < .05$), I^2 의 값은 80.6%로 나타나 개별연구들의 효과크기 이질성을 인정하여 랜덤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으로 최종 선정된 9편의 연구물로부터 총 40개의 효과크기 사례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랜덤효과모형에 의해 산출된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1.292로, 평균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은 1.038~1.546로 0을 포함하지 않으며, p 값이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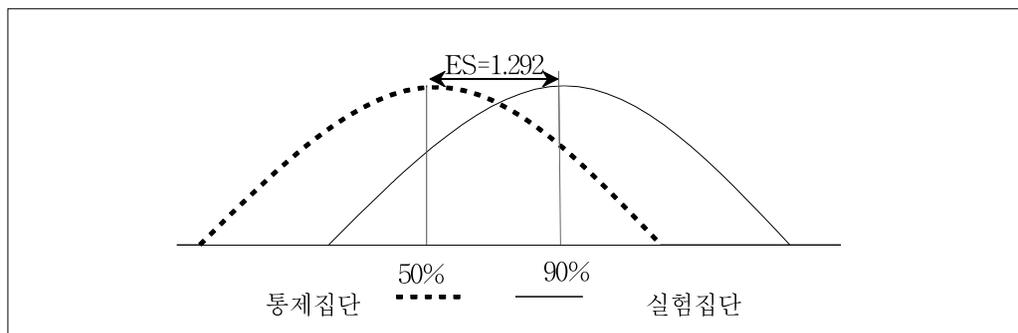
또한, 산출된 전체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으로 볼 때, 0.8 이상으로 큰 효과크기에 속한다. Wolf(1986)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0.50 이상이면 교육적 차원은 물론, 치료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실질적이며 교육적 치료적 차원에서 유의미하였다. 전체 평균 효과 크기 1.292에 대한 백분위 지수는 90%로 정규분포곡선 상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를 50%라고 했을 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백분위 점수가 40%만큼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정규분포곡선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4>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균효과크기

k	ES	95% 신뢰구간	U_3 (%)	Q	p	I^2
40	1.292	1.038~1.546	90%	200.58	.000	80.6

※ k =효과크기수, ES =효과크기, Q =동질성검정통계치, I^2 =이질성검정통계치

<그림 2>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4.2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우선 종속변인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크기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효과성 측정에 활용된 종속변인들을 취업 및 진로 관련 변인군과 심리 및 정서 관련 변인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 40개의 효과크기 중 ‘취업 진로 관련 변인’ 22개, ‘심리정서 관련변인’ 18개 이었으며, Cohen(1988)기준으로 보면 ‘취업진로 관련변인’이 $ES=1.697$ 로, ‘심리정서 관련변인’은 $ES=0.882$ 로 모두 .80이상으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두 변인군의 효과크기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변인 간 $Q=10.68(p=0.001)$ 으로 나타나 취업 및 진로 관련 종속변인군의 효과크기가 심리정서 관련 종속변인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정서 관련 변인보다는 취업진로 관련 변인에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3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이질성이 발견되었고, 개별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랜덤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연구 간 효과크기의 이질성에 영향을 주는 배경에 대해 탐색하기 위하여 조절변인별로 부분집단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기 수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10회기 미만 $ES=1.810$, 10회기 이상 $ES=1.013$ 으로 나타나 회기수가 작을수록 효과크기는 크게 나타났다. 총 회기 수에 따른 집단 간 효과크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Q=6.82$, $p=.009$). 참여세대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40대-60대 이상 모두 포함 ($ES=2.430$)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0-60대가 참여한 프로그램($ES=1.164$), 40-50대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ES=0.625$) 순으로 나타났다. 50-60대 참여세대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40-50대 세대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보다 크게 나타났다. 모두 포함한 세대가 가장 큰 효과크기로 나왔으나 효과크기 개수가 작아(10개 이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세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검증결과 변인 간 $Q=29.91(p=.0001)$ 로 나타나 효과크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종속변인군 및 조절변인에 따른 평균효과크기

변인	k	ES	95% 신뢰구간	I^2	Q	P -value	
종속변인군	취업·진로	22	1.697	1.282~2.112	84.3	10.68	.001
	심리·정서	18	0.882	0.625~1.140	64.8		
회기수	10회 미만	17	1.810	1.273~2.348	80.1	6.82	.009
	10회 이상	23	1.013	0.749~1.277	78.2		
참여세대	50-60대	19	1.164	0.849~1.479	81.1	29.91	.0001
	모두 포함	10	2.430	1.811~3.048	74.8		
	40-50대	11	0.625	0.371~0.879	15.4		
참여인원	0~10명	6	0.700	0.339~1.062	0.0	10.82	.005
	11~20명	21	1.631	1.210~2.051	81.2		
	21명 이상	13	1.107	0.720~1.495	85.3		
출처	학위논문	32	1.453	1.131~1.775	83.6	6.81	.009
	학술지	8	0.807	0.444~1.171	54.5		

※ k =효과크기수, ES =효과크기, Q =동질성검정통계치, I^2 =이질성검정통계치

집단크기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11~20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는 $ES=1.631$, 21명 이상이 참여한 프로그램 효과크기는 $=1.107$, 10명 이하의 인원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 크기는 $=0.700$ 으로 11~20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이하 참여 프로그램 효과크기는 효과개수가 작아(10개미만) 해석에 신중할 필

요가 있다. 부분집단 분석결과 이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I^2 통계량의 값을 보면 21명 이상의 경우 85.3%로 큰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며, 11~20명 이하의 경우 81.2%로 큰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참여인원에 따른 차이는($Q=10.82,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집단 간에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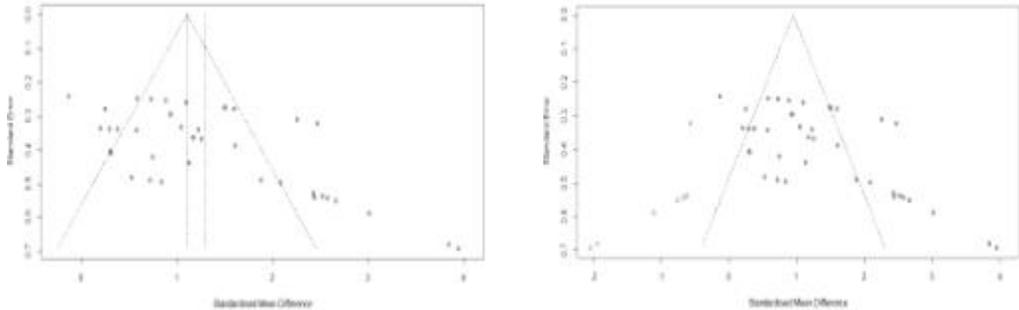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논문의 출간형태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학위논문($ES=1.453$), 학술지($ES=0.807$) 순으로 나타났다. 출간형태에 따른 변인 간 $Q=6.81(p=0.009)$ 로 효과크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4 출판오류 분석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개별연구는 발표에서 제외되고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 위주로 발표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 현상을 ‘출판편향’라고 부른다(유성모, 2019). 메타분석에서 출판편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각 개별연구에서 관측된 효과크기를 기반으로 구한 효과크기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평균효과크기를 중심으로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이 있다. 출판편향이 존재할 경우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효과크기-안정성 계수(Fail-safe N)를 활용하여 유의미하지 않아서 보고되지 않은 개별연구 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크기의 추정값이 강건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유성모, 2019).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출판오류 분석을 하였다. 먼저 Funnel Plot을 통해 시각적으로 비대칭 여부를 대해 확인하고, 통계적 검증방법인 Egger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비대칭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그림 3은 전체 연구결과 40개에 대한 출판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Funnel Plot이다. 삼각형 깔때기의 좌측과 우측 부분에 연구들이 분포된 것으로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Egger의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t=3.9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gger의 회귀분석은 출판오류 평가 검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황성동, 2016). 따라서 Duval 과 Tweedie(2000)의 추정치 가감법(trim-and-fill)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한 후 평균 효과 크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추정치 가감법을 실행한 결과, 교정 전 효과크기($Hedges'g=1.292$)가 추정치 가감법 투입에 의해 교정 후 평균 효과크기($Hedges'g=1.005$)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출판편향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가 다소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추정치 가감법 투입 전 깔대기 그림 <그림4> 추정치 가감법 투입 후 깔대기 그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2020년 3월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40개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중·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논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별 효과크기를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효과크기(*Hedges'g*)는 1.292로 나타났다. 이는 Cohen(1988)과 Wolf(1986)의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80이상으로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며, 교육적·치료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 프로그램 효과는 40%만큼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손강숙·정소미(2018)의 연구에서 전체 효과크기가 .985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 특성화고 고등학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 한 이현경·김진숙(2018)의 연구에서 평균 효과 크기가 .966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취업이나 진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은 대체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역시 중·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고령자들의 취업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증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프로그램의 참여와 비용상의 문제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직자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평생 직업 시대의 효율적 경력관리와 예방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효과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종속변인을 취업·진로 관련 변인군과 심리·정서 관련 변인군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취업·진로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ES=1.697$)가 심리·정서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ES=0.882$)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모두 .80이상으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령자들이 취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진로계획, 구직기술, 전직준비 등 취업이나 진로 준비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외에 심리·정서적 부분(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등)의 효과크기도 중간 이상의 크기로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윤정(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서는 개인의 동기, 진로행동 조절 및 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심리·정서적 측면이 직업인으로서 동기를 유발하고 정서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진로와 심리·정서적 변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주요 조절변인들에 따른 효과크기를 회기 수, 참여세대, 집단크기, 출간형태에 따라 살펴 보았다. 각 조절변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10회 미만일 때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강숙, 정소미(2018)의 경력단절여성 취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인 10회 이상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특성화고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등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10회 미만의 효과크기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신향·김형수, 2014; 이현경·김진숙, 2018; 하지연·신성만, 2015). 따라서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시 10회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령대별 효과크기 분석 결과, 모든 세대 참여가 가장 큰 효과크기이고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 취업프로그램에 모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경우에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40대보다는 50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 취업프로그램 설계 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50대 이상 대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참여인원별 효과크기 분석 결과 11명~20명 이하 참여인원의 프로그램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21명 이상, 10명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은 11명에서 20명 사이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작거나 많은 인원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서 일반적으로 참여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남기범·윤정민·양도연·김준성·천성문, 2019; 이현경·김진숙, 2018). 따라서 10명 이하 참여인원의 효과크기 수는 10개 미만으로 그 수가 작아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출간형태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학위논문의 효과크기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효과크

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손강숙·정소미(2018)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기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신정민, 2015)과 장애학생 대상 진로프로그램 메타분석(이미지, 장세영, 지은, 2015) 등 선행연구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더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가 총 9편으로 분석대상 논문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출간형태에 따른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출판편향분석을 통해 분석에 포함된 연구물에 의한 편향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 연구가 총 9편으로 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결과 해석 및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조절변인의 효과크기의 경우 후속연구에서 보다 축적된 연구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는 국내연구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외국 사례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외국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력, 실업이유, 이전경력 등)과 운영기관 특성 및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다면 현장에서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연구들의 변인들을 유목화 함에 있어 취업·진로 관련변인과 심리·정서 관련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구의 제한점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고령자 취업지원의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중·고령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재확인하고,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취업·진로 관련 변인과 심리·정서 관련 변인 모두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구성하며, 10회 미만으로 회기를 설계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11~20명 이하의 구성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효과크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가 되면서 중·고령자는 여러 형태의 진로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금 중·고령자의 경력을 개발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 개발 및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강혜숙(2006), **퇴직자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윤정(2014),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15(1), 27-43.
 구자관, 박종혁(2012), “고령화 사회의 고령인력 취업에 관한 연구: Filed Survey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

- 구, 19(4), 157-173.
- 구수영(2019), **경력단절여성 대상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성장욕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김기홍, 김해동, 변재관, 김선희(2003), **노동시장과 연계한 중고령자 평생학습 모델 개발 연구: 조기퇴직자 전직교육 지원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남현, 방희명(2019),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구조모형연구”, **인문사회21**, 10(5), 1265-1280.
- 김미자(2009), **고령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구직 효능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서호(2016), **재취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기독교인 은퇴자의 재취업불안, 재취업스트레스,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김석란(2016), **기업 전직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소영(2010), **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취업희망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신향, 김형수(2014),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40(3), 77-97.
- 김안정(2009), **실직 고령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구직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현(2016), **공공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취업희망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기술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2014),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중·고령자의 참여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와 참여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나혜숙(2014), “실직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2), 203-210.
- 남기범, 윤정민, 양도연, 김준성, 천성문(2019), “스마트폰 중독 집단상담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문제 분석**, 33(2), 27-54.
- 노경란, 정희숙(2008), “고령인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HRD연구**, 10(2), 109-134.
- 노연희, 김명언, 장재윤, 김민수(2004), “고용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성취프로그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1), 19-41.
- 박연(2004), **취업희망프로그램이 구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박가열, 강혜영, 임은미, 조성호(2007), **취업희망프로그램 개정 연구**,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 박예슬(201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노동부 WIN(Woman Into New Jos, Career, Life)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정하(2016), **전직준비를 위한 생애설계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자존감, 전직준비도,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영의(2007), **직업교육에 참여한 준고령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손강숙, 정소미(2018),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451-468.
- 신정민(2016),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신효재(2014),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장년층 구직자의 구직효능감과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세빈(2016), **구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만족과 구직효능감 및 구직준비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안승완(2005),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 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유성모(2019), **R메타분석 쉽게 배우기**. 서울: 황소걸음아카데미.
- 이창향(2014), **재취업 준비프로그램이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형국(2009), “노인층 직업재활을 위한 구직역량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직업재활연구**, 19(3), 31-56.
- 임주연(2008), **정년퇴직준비프로그램이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의 기대와 불안 및 퇴직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조은주, 이경화(2015), “성인학습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커리어 미래 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HRD연구**, 17(4), 77-104.
- 이명심, 심지현(2016), “퇴직경찰공무원의 경력이동분석에 따른 진직유형 및 지원방안 도출연구”, **경찰학논총**, 11(3), 291-324.
- 이미지, 장세영, 지은(2015), “장애학생 대상 진로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0(3), 291-312.
- 이선미(2018),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세영, 김병규(2014), “고령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정신건강(우울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5(4), 1-21.
- 이우현, 하태중(2007), “고령자 고용문제와 고용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7(1), 29-50.
- 이주은(2018), **경력단절여성 취업프로그램의 학습효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 이창우(2007),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취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이현경, 김진숙(2018),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집단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9(1), 195-216.
- 이현정(2018), **R언어를 활용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인성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의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임안나(2007), **公共部門의 轉職支援서비스 效果性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장세비(2016), **취업희망프로그램이 취업취약계층의 진로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 전미영(2013),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통계청(2015),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2017), **사회조사**.

하지연, 신성만(2016), “청소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191-216

황희숙(2011), “고령자 고용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6, 217-240.

한국고용정보원(2015), **고령화 연구패널**.

한국고용정보원(2017), **고령화 연구패널**.

황성동(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황성동(2016), **Free Software를 활용한 메타분석**,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Anthea, T.(1997), Older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Some Basic facts*, London: Age Concern.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stein, H. R.(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UK: Wiley.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uval, S., & Tweedie, R.(2000), “A nonparametric ‘trim and fill’ method of accoun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5, 89-98.

Egger, M., Smith, G. W., & Altman, D. G.(2001), *Systematic reviews in health care: Meta-analysis in context (2nd ed.)*. London, UK: BMJ Books.

Green, B. & J Hall(1984),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5, 37-53.

Hedges, L. V., & Olkin, I.(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Orlando, FL: Academic Press.

Higgins, J., & Green, S.(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The Cochrane Collaboration, Retrieved from <http://handbook.cochrane.org>.

Lipsey, M. W., & Wilson, D. B.(2001),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 CA: Sage.

Littell, J. H., Corcoran, J., & Pillai, V.(2009),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 Altman, D.(2009), “Preferred reporting it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2, 1-34.

Rmeta(<http://cran.r-project.org/web/packages/rmeta>).

Rothstein, H. R., Sutton, A. J., & Borenstein, M.(2005),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In: Rothstein, H. R., Sutton, A. J., Borenstein, M., eds.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Prevention, assessment and adjustments*, 13 - 29. DOI:10.1002/0470870168.

Wolf, F. M.(1986), *Meta-analysis: Quantitative methods for research synthesis*, Sage Publication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0, No. 3 - September 202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Job Search Support Program for Middle and Older Adults: Using a Meta-Analysis

Myoung-Hee Lee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Hang Jo*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job-search support programs for middle and old-aged people using a meta-analysis. For this, a total of nine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job-search support programs for those over 40 years of age were finally selected, and we derived 40 effects sizes and conducted a meta-analysis with them. Specifically, we calculated the average effect size of the job search support programs for middle and older adults, and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 of various variables such as number of sessions, age of participants, number of participants, type of publication, program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middle and old-aged people was 1.292, which is a large effect. Second, when examining the effect size of each outcomes variable group, the effect size of the employment/career variable group was larger than that of the psychological/emotional variable group. Third, the effects of moderating variables such as number of sessions, age of participants, group size, and publication type were analyzed. In specific, the programs with less than 10 sessions, various age participation, and 11-20 participants were more effective. For the publication type, the effect size of the dissertation studie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journal paper.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for the middle and the elderly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Job Search Support Program, Middle and Older Adults, Meta-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197, Inje-ro,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50834; E-mail: hangjo@inje.ac.kr; Tel: +82-55-320-4023; Fax: +82-55-320-4052.